

국별 리포트

이라크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3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442천 km ²	G D P	915억 달러 (2008년)
인구	30.1백만 명 (2008년)	1 인 당 GDP	3,040 달러 (2008년)
정치체제	내각책임제	통화단위	New Iraqi Dinar (ID)
대외정책	비동맹, 친미노선	환율 (달러당)	1,193 (2008년)

- 이라크는 중동에서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시리아와 접경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2배에 달하는 국토면적과 30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이슬람 국가임.
- 세계 3위의 석유 (확인매장량 1,150억 배럴) 및 12위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112조 입방피트) 자원을 보유한 세계적인 자원부국으로 아직 미탐사 유전지역이 많아 자원개발 면에서 커다란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재건복구 계획 및 세계 각국의 지원 등을 통해 경제 회복을 추진하여 왔으나, 빈번한 테러 및 저항활동으로 인한 치안 불안과 외국인 투자 부족 등으로 뚜렷한 성과를 시현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2010년 3월 7일 실시된 총선에서 현 말리키 총리의 법치국가 연합(State of Law Alliance)이 다수당 달성에 실패한 후 총선결과 불복을 선언함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지연 등 정국혼란이 예상되고 금년부터 시작되어 2011년 완료될 미군의 철수 계획으로 인해 체제 불안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e	2010 ^f
경제성장률	6.2	1.5	9.5	4.3	5.8
재정수지/GDP	14.2	8.8	1.5	-4.0	-8.8
소비자물가상승률	53.2	30.8	2.7	-2.8	6.0

자료: IMF 및 EIU

□ 불안한 치안상황이 이라크의 경제성장을 억제

-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1990년 시작된 유엔의 12년간의 경제제재로 이라크의 경제는 위축되었음. 2003년 이라크전쟁 발발에 따른 석유 생산량 감소와 체제 붕괴, 내부 혼란의 여파로 2003년 이라크 경제는 33.1%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후, 2004년에는 재건 복구 수요 및 투자 증가로 23.0%의 급성장세를 시현하였음.
- 2005년 이후 정정 불안에 따라 많은 이라크 국민들이 시리아, 요르단 등 주변 국가로 탈출하면서 내수가 감소하고 원유 생산량도 축소되면서 2007년에는 경제성장률이 1.5%를 기록하는데 그쳤음.
- 2008년에는 치안 상황이 개선되면서 경제 활동이 비교적 활기를 되찾고 원유 생산량도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은 9.5%로 급등하였으나,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 및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4.3%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OPEC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유가 하락을 막기 위해 회원국의 원유생산 쿼터를 축소하였으나, 이라크는 1990년 쿠웨이트 침공으로 인한 유엔의 경제제재 조치로 OPEC의 생산량 쿼터 배정에서 제외되어 왔음.
- 2010년에는 석유 및 기반시설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국제유가 상승, 원유 생산량 증가 및 국내 소비수요 증대 등이 전망되면서 경제성장은 5% 후반대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재정수지 악화

- 2004년 이라크의 재정수지는 원유 생산량 감소로 인한 정부 수입 축소 및 전후 복구재건 사업으로 인한 지출 증가로 GDP 대비 40%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2005년 이후 유가 상승 및 원유 생산량 증가로 인한 재정수입 증가, 치안불안에 따른 정부의 예산집행 저조 등으로 2008년까지 흑자기조를 유지하였음.
- 2009년에는 유가 하락으로 재정수입이 줄어들면서 재정수지가 GDP 대비 4.0%에 달하는 적자로 전환되었음. 2010년에도 재정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치안강화와 원유, 수자원, 전력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적자규모는 GDP의 8% 후반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 앞으로 기반시설 재건, 공공부분 고용확대 등을 위한 정부지출 증대로 재정수지는 당분간 적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라크의 2010년 예산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724억 달러 규모로 그 중 개발투자 프로젝트에 203억 달러가 배정되었음.
 - 그러나 과거 수년간 이라크 정부의 집행력 부족이 문제가 되어 왔음에 비추어 2010년에도 정부의 예산집행 정도와 총선 후 신 정부의 신속한 구성여부가 이라크의 재정수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보조금 축소로 인한 유류 관련 교통요금 상승, 생필품 부족으로 인한 가격 급등, 수입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06년에는 53.2%나 급등하였으나, 이라크 중앙은행이 이라크 디나르화 절상과 이자율 인상조치 등의 긴축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물가 급등세가 둔화되어 2007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0.8%를 기록하였음.
- 2008년에는 이라크 디나르의 통화가치 상승 지속, 생필품 수급 개선, 국제 상품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로 대폭 하락하였으며, 2009년에는 연료 및 식품가격 하락세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가 -2.8%의 전년대비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2010년에는 세계경기 회복 및 국제 상품가격 상승이 전망됨에 따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대 수준의 상승세로 다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됨.

2. 경제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 및 전쟁 등으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 1970년대까지 이라크는 중동국가 중 기반시설이 가장 발달된 국가 중 하나였으나, 수십년간의 투자 부족 및 1990년 쿠웨이트 침공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 전쟁으로 인한 각종 시설 파괴 등으로 이라크의 기반시설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음.
- 전후 복구 사업 및 이라크 정부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정국 및 종파간의 갈등으로 인한 테러 등으로 기반시설 파괴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이라크 경제회복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 이라크는 석유 부문이 GDP의 60%, 수출의 98%, 정부 재정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석유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등락이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라크는 1990년 걸프전 이전까지 제조업 육성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었으나 걸프전 이후 UN 경제제재 하에서 제조업이 위축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 이라크전쟁 이후 많은 산업시설이 파괴되는 등 제조업 위축이 가속화 되어 현재 석유산업 및 농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은 크게 위축된 상황임.
- 전후 계속되는 보복성 테러 및 저항활동으로 인하여 각종 기반시설의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제조업 등 기타 산업의 회생 및 발전 또한 더디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라크는 대부분의 소비재,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등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 부국

-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에 이어 세계 3위인 이라크의 원유매장량은 2008년 말 기준 약 1,150억 배럴로 석유산업은 정부재정 및 외화수입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나라 최대 산업이며, 이라크 경제성장의 주 동력원임.
- 이라크에는 아직 미탐사 유전이 많아 현재 전체의 약 10% 정도만 탐사되어 개발된 것으로 추정됨.
- 원유 매장량의 3분의 2가 이라크 남부지역에 매장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천연가스도 남부지역에 매장되어 있음.
- 이라크는 2009년 240만 배럴/일의 원유를 생산, 190만 배럴/일의 원유를 수출하였으며, 이라크 정부는 2010년 215만 배럴/일의 원유를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라크 정부는 2009년 ExxonMobil (미국), Royal Dutch Shell (네덜란드), Statoil (노르웨이), Lukoil (러시아) 등의 석유회사와 유전개발에 대한 장기계약을 맺었으며, 정부는 이러한 계약을 통해 현 240만 배럴의 일산 능력을 2016년까지 1,200만 배럴로 증대하고자 함.
- 이라크는 천연가스 매장량도 세계 12위권인 112조 입방피트이며, 그 밖에 인산염, 황 등의 비석유 천연자원과 티그리스 강 및 유프라테스 강 등으로 인해 주변국에 비해 풍부한 수자원도 보유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자유 시장경제원리 확산 및 규제 철폐

- 2003년 종전 후 출범한 이라크 정부는 30년간의 후세인 정권에 의한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철폐하고, 경제관련 법규를 대폭 개편하여 자유 시장경제를 채택하였음.

- 이라크의 신 경제정책은 USAID의 '경제회복 및 개혁계획'(Economic Recovery and Reform Plan)에 의거 컨설팅 기업인 베어링포인트(Bearing Point)가 주도하고 있으며, 중앙은행, 재무부, 무역부, 상공부와 더불어 무역, 투자, 민영화 등에 관한 전반적인 조직체계, 법령의 준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라크 정부는 기업법, 은행법, 증권법, 외국인 투자법, 중앙은행 관리법 등 자유 시장경제 전환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혁을 시행하였으며, 단일 관세율 제정 및 관세율 인하, 누진 소득세 도입, 균형예산 편성, 국채 발행 등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시행하였음.
 - 금융·통화 부문 : 신권 발행, 변동 환율제 정착, 이자율 자유화, 중앙은행 독립 등의 정책 시행
 - 석유 부문 : 3개 국영 석유공사 통합 진행
 - 통신 부문 : 위성방송 허용, 휴대전화 서비스 개시, 유선 전화망 정비 시행

□ 고용창출 확대 노력 강화

- 이라크 정부는 2007년 시멘트, 섬유, 제약, 석유화학 등 21개 국영기업을 선정, 국영은행인 Rasheed은행과 Rafidain은행*의 대출을 통하여 정상운행을 도모하는 등 전후 폐쇄된 공장을 재가동하여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음.
 - * 이라크에는 Rasheed와 Rafidain의 2개 국영은행이 있으며, 이들 2개 국영은행이 이라크 총 은행 예금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 2006년 12월 이라크는 신 투자법을 제정하여 내·외국인간 차별을 철폐하고 외국인의 100% 단독투자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 2007년 11월에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국가기관인 국가투자위원회(National Investment Commission)를 설립하고 주정부별로 투자위원회를 설치하여 투자관련 조직을 갖추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음.

- 이라크는 계속되는 테러 및 저항활동으로 인한 치안 및 정정 불안으로 아직 투자 위험도가 매우 높지만, 최근 외국인 투자유치에 유리한 석유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미군 철수 후 이라크의 독립적인 재건 및 투자 활동이 예상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이라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라크는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10개 유전지역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는 등 원유 및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e	2010 ^f
경 상 수 지	13	141	137	17	61
경 상 수 지 / GDP	3.0	22.5	16.1	2.2	6.1
상 품 수 지	118	230	216	52	100
수 출	305	396	588	409	525
수 입	187	166	372	358	426
외 환 보 유 액	194	310	498	448	461
총 외 채 잔 액	992	1,023	677	503	521
총 외 채 잔 액 / GDP	235.1	164.1	80.0	67.3	56.8

자료: IMF 및 EIU

□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기조 지속

- 이라크는 원유 수출이 수출액의 98%에 달하는 등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제 유가 및 원유 생산량이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라크의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2006년부터 원유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흑자기조를 지속하고 있음.
-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 및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수출이 전년대비 30%나 축소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17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2010년에는 유가 상승 및 원유 생산량 증가로 흑자폭은 전년대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 증가, 외채감소 등 외채상황 개선

- 국제 고유가에 따른 석유수출 증가로 외환보유액은 2003년 종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어 왔으며, 2009년말 외환보유액은 450억 달러 수준으로 비교적 풍부한 편임.
- 2004년 11월 파리클럽과 쿠웨이트 등이 이라크 채무 중 80%를 3년에 걸쳐 탕감해 주기로 결정한 후 2008년 세 번에 걸친 채무 탕감이 마무리 되어 외채잔액은 2007년말 1,023억 달러에서 2008년말 677억 달러로 대폭 감소하였음. 또한, 최근 수년간 GDP의 지속적인 증대로 인해 GDP 대비 총 외채잔액 비율은 가파른 감소세를 보여, 2009년 67.3%를 기록하였음.

III.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이라크 정식정부 출범

- 2004년 6월 연합당국(Coalition Provincial Authority)의 통치로부터 이라크 국민들에게로 주권이 이양된 이래 임시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 (2005. 1. 30), 영구헌법 승인을 위한 국민투표 (2005. 10. 15), 정식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 (2005. 12. 15), 대통령위원회, 국회의장단 구성 및 총리지명 (2006. 4. 22) 등 2년여에 걸친 이라크 정치 정상화 과정이 완료되었음.
- 이라크 정부는 대통령과 부통령 2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위원회와 실질적으로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 및 2명의 부총리, 그리고 34명의 부처장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 행정부 수반인 탈라바니 (Jalal Talabani) 대통령은 쿠르드계로 국가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긴 하나 각 부처의 행정에 대한 실권은 총리가 관장하고 있어 대통령의 권한은 제한적이며, 총선에서 승리한 이슬람 시아파 연합당 소속 말리키 (Nouri al-Maliki) 총리가 내각을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음.

- 새 정부의 공식 출범에 따라, 후세인 시절 인구의 20%에 불과하면서도 30년간 지배세력이었던 수니파가 몰락하고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시아파가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부상하였으며, 자치권 요구로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어 왔던 쿠르드족이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대두되었음.

□ 정파, 종파간 첨예한 대립 지속

- 이슬람교의 양대 종파인 시아파와 수니파는 이라크에서 정치 이념과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독자적 정파를 형성하고 있고, 북부 쿠르드지역에는 쿠르드 지방정부가 상당한 자치권을 갖고 독자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은 연방제, 석유법 등의 정치현안을 두고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 말리키 정권은 시아파와 쿠르드의 연정으로 내각이 정파별 지분에 따라 구성되어 있어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9년 1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말리키 총리가 이끄는 범치국가연합이 승리를 거두었으나, 쿠르드 정당 및 타 시아파 지도자와의 긴장관계는 지속되고 있음.
- 2006~07년 초와 같은 극심한 종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2010년 3월 7일 총선을 앞두고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이 고조되고 치안상황이 악화되었음. 또한, 3월 26일 발표된 총선 결과 말리키 총리가 이끄는 범치국가연합이 다수당 달성에 실패하면서 총선 결과에 대한 불복을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정파, 종파간 분쟁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큼.

□ 주변국가 및 서방국가와의 관계 개선

- 이라크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친미 외교노선을 유지하여 미국의 지속적인 군사 및 경제원조를 받고 있으며, 이라크전에 반대했던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과도 외교관계가 개선되고 있음.
- 또한 주변 아랍국과의 관계 개선 및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고, GCC 회원국, 요르단, 시리아, 이란 등과의 관계도 호전되고 있는 추세로서, 요르단과는 2009년 9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음.

2. 사회 및 소요사태

□ 치안 불안 양상 지속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다소 개선

- 2003년 이라크전쟁 종료 후에도 테러 및 저항활동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바그다드의 치안 상황이 특히 심각한 수준임. 이라크는 국가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분류되며, 외국 기업인에 대한 빈번한 납치활동으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있음.
- 계속되는 테러 및 저항활동으로 원유의 채굴·정제설비 및 파이프라인, 전력, 상하수도, 도로, 교통 등 기간산업 인프라가 크게 손실되어 민생여건이 크게 악화되었음.
- 수니파와 시아파의 종파간 보복성 테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06년 말리키 정식정부 출범 이후 사회 교란을 노린 저항 세력들의 공격이 격화되고, 종파간 이해관계에 따른 충돌이 심화되어 왔음.
- 또한 시리아 등에서 유입된 알카에다의 테러활동 등이 격화되면서 2006년 말까지 이라크의 치안 상황은 악화 추세였으나, 2007년 2만 명 미군 증파,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 미군의 치안 안정화 노력과 다국적군의 지역 중심 치안 확보 전략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2007년 하반기부터 테러 건수와 사망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치안 상황이 개선되었음.

□ 불확실한 정국 상황으로 인한 치안 불안 심화 가능성

- 2009년 6월 미군은 이라크 도심으로부터 지방으로 철수하였으며, 미국 정부는 2010년 8월까지 8만 명의 전투 병력을 본국으로 철수시킨 뒤, 2011년까지 잔여인력을 모두 철수시킬 계획임.
- 2009년 미군의 도심 철수 이후 6월부터 테러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9년 8월 바그다드 시내에서 700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폭탄테러가 발생하였음.
- 2009년 1월에는 연기되어 왔던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현 말리키 총리가 이끄는 법치국가연합이 승리를 거두었으나 정국 안정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 또한 2010년 3월 총선 결과 법치국가연합이 알라위 전 총리가 이끄는 이라키야에 이어 2위를 기록*하면서 총선결과 불복을 선언함에 따라 신 정부 출범이 지연되는 등 정국혼란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총 325석 중 이라키야 91석, 법치국가연합 89석 획득

□ 높은 실업률 및 인력 유출 지속

- 이라크의 실업률은 2003년 전쟁발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IMF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라크의 실업률은 18.5%를 기록하였으나, 실제 실업률은 30~50%에 달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1990년대 이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국으로 이라크의 고급인력이 유출되기 시작하였고, 2003년 후세인 정권이 붕괴된 이후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어 2003년부터 이라크 의사의 50%가 해외로 유출되는 등 고급 인력 유출이 이라크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표 3> 기관별 신용도 평가 순위

기관명	현행	종전
수출입은행	E	E
OECD	7등급 (2009.4)	7등급 (2007.10)
Euromoney	167/186 (2009.9)	167/186 (2009.3)
ICRG	119/140 (2010.1)	116/140 (2009.1)
II	144/178 (2009.9)	157/177 (2009.3)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 제약조건이 있음
- 네덜란드 Atradius : 보증 적용 불가능
- 영국 ECGD : 제한적 보증 적용 가능
- 독일 Hermes : 제약조건이 있음

3. 외채상환태도

□ 외채탕감으로 외채상환부담 감소

- 2004년 11월 파리클럽은 이라크 채무 420억 달러 중 80%에 해당하는 336억 달러를 3년에 걸쳐 탕감해 주기로 결정하였으며, 쿠웨이트도 파리클럽과 동일한 방식으로 80% 탕감안을 확정함.
- 2004년말 1,2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이라크의 외채 중 약 67%가 GCC국가에 대한 채무(쿠웨이트 284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250억 달러)*이며, 19개의 파리클럽 회원국들에 대한 이라크의 채무는 약 420억 달러임.
- * GCC 국가에 대한 채무는 주로 1980~88년 동안 진행된 이라크-이란 전쟁시에 이란의 전쟁 승리를 원하지 않는 사우디, 쿠웨이트, UAE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에 기인함. 이들 GCC 국가들은 1979년 이란의 회교혁명 이후 혁명 확산 및 시아파 확대를 우려하여 이라크를 지원하였음.
- 이라크는 2008년 2월 러시아와 120억 달러 채무탕감에 합의하였고 2008년 7월 UAE는 이라크 채무 70억 달러 탕감 계획을 발표하였음. 2010년 2월에는 중국이 85억 달러에 달하는 이라크 채무 중 80%를 탕감하는데 동의하였음.
- 한편, 제1차 걸프전 직후 UN안보리 결의안에 의하여 쿠웨이트에 지불 하도록 결정된 배상금 (이라크 석유 및 가스 수출액의 5%) 및 총 외채의 12%로 추정되는 민간 상업차관에 대해서는 탕감 가능성이 낮은 편임.

□ 국제사회 지원동향

- 2003년 미국 주도의 서방국가들은 이라크 재건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일본 15억 달러, 미국 200억 달러, 유럽연합 2억 달러, 영국 9억 달러 등 세계 각국은 이라크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음.
- 우리나라 또한 2억 6천만 달러의 무상원조 지원을 발표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무상지원 15억 달러 이외에 30억 달러의 유상 차관 지원을 약속하였음.

- 미국, 일본, 영국 등은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2003년 원조공여국 회의에서 약속한 총 330억 달러 상당의 원조 시행 및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

□ **2010년 2월 IMF, 이라크에 대한 대기성 차관 36억 달러 승인**

- 2010년 2월 IMF는 이라크에 대한 대기성 차관 36.4억 달러를 승인 하였는데, 이는 정치적·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이라크의 경제발전 및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IMF 차관 승인으로 2010년 이라크 정부의 개발 프로젝트 투자 확대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36.4억 달러 중 4.6억 달러는 IMF 승인 즉시 이라크 정부가 이용 가능함.

4.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3> **한·이라크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7	2008	2009	주요품목
수 출	210	368	785	수송기계, 농산물 등
수 입	3,080	4,228	3,812	원유
합 계	3,290	4,596	4,597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 국교수립 : 1989. 7. 9 (북한과는 1968. 1. 30 수교 후 1980. 10. 10 단교)
- 주요협정 : 무역, 경제기술 과학협력협정 (1983), 항공협정 (1985), 평화협정 (1985), 체육협력의정서 (1987), 외교공관 부지교환 협정 (1987)
- 이라크는 우리나라의 제5위의 원유도입선으로 2007년 이후 이라크로부터의 원유 수입이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와의 2009년 교역규모는 전년 수준인 약 46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주요 수출품은 수송기계 (자동차), 농산물 등을 중심으로 약 7.9억 달러, 수입은 원유 수입으로 약 38억 달러를 기록함.
- 2009년 대 이라크 수입액 38억 달러 모두 원유 수입에 의한 것으로, 2008년에는 원유 이외에 가죽 및 모피제품도 수입하였으나 이라크의 빈약한 산업 기반으로 인해 여타 상품 수입은 제한적임.
- 해외직접투자 (2009년 12월말 누계, 총투자 기준) : 7건 86,735천 달러

V. 종합의견

- 유엔의 오랜 경제제재와 이라크전에 따른 산업 기반시설 파괴로 이라크 경제는 크게 위축된 상태이나, 전쟁종결 후 자유시장 개방경제를 채택한 신 정부의 경제재건 추진과 고유가 및 원유생산 증가로 인하여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파 및 종파간 충돌과 치안 불안의 영향으로 경제 성장의 기복이 심함.
- 이라크는 수출의 대부분을 원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쟁에 따른 피해로 기타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등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세계 3위의 원유 및 12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이며, 아직 미탐사 유전지역이 많이 남아 있어 커다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자원부국임.
- 미군과 이라크군이 이라크 안정화 노력을 통해 테러를 진압하면서 2007년 중반 이후 치안상황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 수니파와 시아파간 보복성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음.

또한 2010년 3월 실시된 총선 결과 현 말리키 총리가 이끄는 법치국가연합이 총선결과 불복을 선언하면서 정국혼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2011년 미군이 계획대로 완전 철수하면 국내 체제 불안정이 악화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음.